(주)일룸

기업 정보

회사명 (주)일룸
대표자명 강성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빌딩 3층
주생산품 어린이용 가구, 모션베드, 모션데스크, 스터디 가구, 리빙 가구, 펫가구 등
홈페이지 www.iloom.com

(주)일룸은 2007년 설립되어 가정용 가구(어린이용 가구, 모션베드, 모션데스크, 스터디 가구, 리빙 가구, 펫가구 등) 제조하는 기업이다. 진정성 있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소비자의 생활습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대로 제조하는 기본에 충실한 혁신적 가구, 새로운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의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한다.
가구 시장이 친환경 자재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던 2011년부터 일룸은 만드는 모든 제품에 포름 알데히드 방출량이 E1보다 최대 5배 낮은 E0 목재를 업계 최초 도입하여 친환경 가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주)일룸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저마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가구를 '제대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구를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KC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주)일룸은 어린이용 가구, 762mm이상 서랍장, 전자파적합인증 대상 제품 등을 인증받았으며,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제품 출시 프로세스에 KC 인증에 대한 항목을 두고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KC인증을 취득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국제 공인시험 기관(KOLAS) 인증을 받은 국내 자체 생산 인프라와 홈가구 연구소만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엄격한 테스트와 품질관리를 거쳐 가구를 제조하고 있다. 손이 닿지 않는 모서리부터 눈에 닿지 않는 레일까지 신경써서 안전하고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제조한다. 제조 협력업체에게도 안전 및 품질 수준을 (주)일룸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진행한다.
현재 품질관리팀 8명(관리직 2명, 현장직 6명)에서 KC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KC인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함으로써 KC인증과 관련한 기본 업무지식 함양하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한다.
(주)일룸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KC인증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한다면 경제적인 비용 문제는 물론 경영상 위험이 커 막대한 부담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KC인증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게 합니다

(주)일룸은 어린이용 서랍장이 전도사고가 우려되어 리콜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후 (주)일룸에서는 가구의 선 하나, 각도 하나 등 작은 요소까지 디테일을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과 편의를 위한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다. 1인 리클라이너 소파 볼케의 회전각도를 좌우 15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리미트 기능을 통해 리클라이너가 한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전선이 말리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또한 서랍장 안전성 기준 중에서 등분포하중에 대한 시험이 추가되었을 때, (주)일룸은 생산하는 서랍장에 별도 안전 인출 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배려하고자 노력한다. (주)일룸의 감각적이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아 일본 '굿 디자인'과 한국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도 있다.
"앞의 낮은 가격이나 매출 등의 목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안전한 제품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안전기준 강화 규제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뒤돌아보았을 때 (주)일룸은 강화된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 개정 이후 판매 및 유통된 제품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업자들에게 개정 이전 유통된 제품까지 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면, 막대한 부담은 물론 법에 대한 타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수많은 제조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다 보니 확실하게 규제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시켜서, 현실적인 혼란과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